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상임고문, 최고위원들이 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이 1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희호 여사와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안철수 의원(앞줄 가운데) 등 새정치추진위원회 대표단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여야 새해 첫날 “지방선거 필승” 다짐

현충원 참배 등 각오 다져

여야는 2014년 갑오년(甲午年) 첫 날인 1일 오전 신년맞이 행사를 각각 갖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등 각오를 다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신년인사회를 열고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한편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6월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켜보고 웃음을 다시 머금고 결손 하면서도 성실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가 미래를 기약하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올해는 박근혜 정부 2년차로 국정운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새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6월 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예방했다. 김 대표

김한길 대표는 인사말에서 “올해는 민주주의와 민생에 더해 승리가 필요한 한 해다”며 “두려움 없는 변화를 기꺼이 감당, 다시 한번 우뚝 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 대표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다.

김 대표 등 지도부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으로 예방했다. 김 대표

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안 의원은 이날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의 김효석·윤장현·이계안·박호군 공동위원장, 송호창 의원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방명록에 “열어주신 길, 우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동안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일행이 참배를 왔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김 전 대통령 묘역으로 돌아가 이 여사와 둘째아들 홍업 씨 등과 인사했다.

민주 지도부 오늘 5·18묘지 대규모 참배

김한길 대표 등 1000여명 참석 새해 첫 지역행사...안신당 견제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갑오년 새해를 맞아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 특검 촉구 결의와 함께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한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당 대표를 비롯한 전체 지도부와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핵심 당직자 및 당원 등 1000여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새해 첫 지역 행사로 대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데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호남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 의도와 함께 지방선거 기선잡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높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탈당이 이뤄진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에서 장예우 11가구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쳐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2014 희망만들기, 도민과 함께 생활 속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생지원 봉사단을 구성, 전남지역을 돌며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광주시당도 2일 당협위원장 및 당직자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시무식을 갖고 6·4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짐 예정이다.

국정원개혁 첫 성과... ‘정치개입 방지’ 다중장치

여야, 수사권 존치 등 2라운드 사활전 공방 예상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규명 특검 도입 논란도

여야가 진통 끝에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정원 개혁법안은 사상 처음으로 자체 내부 개혁이 아닌 외부 국회 차원의 수술이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국정원 개혁법안은 범죄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장치 마련에 주력했던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담겼으며, 여야가 지난해 12월3일 4차회담을 통해 마련한 개혁방안 대부분을 담았다.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과 IO를 통한 국내정보 수

집 가능성은 존치하면서도 다각적인 통제장치를 갖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된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경찰·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개혁법안에 대해 여야는 물론 국정원, 3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내놓은 첫 가시적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이 1

일부터 제2라운드에 접어들게 돼 또 다시 여야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오는 2월 말까지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는 연말까지 입법과제를 마치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어 여야간 사활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 대응능력과 해외·대북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놓고 치열한 논리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휴대전화와 감청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합법적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수사권 존치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의 감·경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분석 권한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 정보의 경우 현행법상 보안 관련 정보만 수집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산업 정보의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 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고자 간접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출자총액제한 대상)에 한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회사의 인수합병·분할,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합의에 따른 계열사의 출자나 증자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

하거나 기존 순환 출자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를 허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국회는 또 택시면허 총량 계획에 따라 과잉 공급 지역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택시운송사업발전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지방 공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착용 및 통학버스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소득세 최고과표 1억5천만원 확정

앞으로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이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증가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증가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백운동 까치고개 (동아일보 사옥)

메디칼센터 임대 (병·의원) 임대

2층 : 양·한방 입점 완료
3층 : 피부과·비뇨기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입점 가능

넓은 주차장(80대주차가능) / 저렴한 임대비

문의 062) 651-6581
의 010-3690-7790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백운동 로타리 대로면 주월동 상업지역 551㎡(167)병원 등 빌딩적합 대출 12억 매도 2억5천
- 담양군 대덕면 운암리 임야 71430평 평당 3천원 2억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수익 9억6천
- 담양군 순창간 4차선 국도점 관리지역 810평 가든,전원주택 등 적합 평당 30만원 조정가능함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동물사육·아직장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6000만원
- 모텔, 전복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출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몽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할적합 건물 합평군 월이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기도원용 산 주택과 교환도 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복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원 월900만원 매도9억6천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판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빌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